

2010 1 27 (/)

(,)

(16) (, 1.27)

1

(,)

... 17 (, 1.27)

2

2010 1 27 (/)

1 가 ?... (1) (, 1.27)

3

1 가 ?... (2) (, 1.27)

4

색간 내일신문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 적용

<완화의료 서비스>

말기 암환자 통증·증상 관리 ... 서울성모병원 등 7곳에서

말기 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적절히 관리하는 완화의료(호스피스)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이를 위해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의원에서 완화의료 서비스가 시범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서울성모병원을 비롯, 가천의대 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산성모병원, 샘물호스피스병원(용인),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전진상의원(서울 금천구) 등이다. 시범사업 대상 완화의료 병상수는 모두 126개이다.

이 서비스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말기 암환자가 대상이다.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환자 가족이 심리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제공

되는 의료서비스가 완화의료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는 1일당 정액수가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진료행위와 의약품 치료재료 등 완화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다.

환자는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의 내용이나 양에 관계없이 일정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등록 암환자는 전체 5%만 비용을 대면 된다.

다만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식대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종전과 같은 방식대로 환자가 부담한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외국은 이미 건강보험에서 일당 정액수가 형태로 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해 급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호스피스·완화요료를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정액수가 수준이나 입원료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적정 비용으로 양질



완화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사진은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자원봉사자 활동 모습이다.

의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화의료 전문가를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으로 말기암 환자가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며 "환자와 가

족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의미한 치료 중단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ibeom@naeil.com

21.9 X 17.0 cm

말기암환자 급여 시범사업...최대 17만원

심평원, 내년 6월까지...서울성모·길병원 등 7개 기관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1년 6개월간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종합전문병원은 서울성모병원과 가천의대길병원이며 종합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산성모병원이다.

병원급은 샘물호스피스병원, 서울시서북병원, 의원급은 전진상의원어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은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관으로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 지역, 시설·인력기준,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형태 등을 고려해 선정된 7개 기관이며,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수가형태는 요양기관 종별 입원 1일당 정액수가다.

정액수가는 간호사 인력이 기준보다 많은 경우와 완화의료 병동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이 가산돼 1일당 종합전문기관은 16만 810원~17만 5470원, 종합병원은 13만 400원~14만 4650원, 병원은 7만 8700원~9만 1550원, 의원은 7만 2400원~8만 3510원이다.

정액수가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진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 등 완화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는 제공 받은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양에 관계없이 일정금액(등록 암환자의 경우 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식대(행위별수가 기준 적용)와 건강보험에서 급여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종전과 같은 방식대로 환자 부담 진료비가 발생한다.

심평원은 향후 1년 6개월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시행하고 완화의료서비스 전문 의료기관 모형 개발과 확대 시 적용할 적정 수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정액수가 수준 및 입원료 체감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본 사업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적정 비용으로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화의료 전문기관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말기 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환자 가족이 심리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외국은 이미 건강보험에서 일당 정액수가 형태로 완화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고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기사입력시간 2010-01-27 12:30

완화의료 1일 정액수가는 얼마?...시범사업 실시

심평원, 7개 병원 대상 18개월 진행...표준수가 개발 활용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2010-01-27 오전 5:40:13

수가	일당 진료비 (원)			
	기본금액	간호사 가산		사회복지사 전담
		1등급	2등급	
종합전문	160,810	11,370	5,420	3,290
종합병원	130,400	11,100	5,280	3,150
병원	78,700	9,820	4,680	3,030
의원	72,400	8,160	3,880	2,950

주 1. 2010년도 수가 기준
2. 일당진료비는 진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임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된 7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년 6개월간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관은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7개 기관이다. 7개 기관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가형태는 요양기관 종별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이다.

정액수가는 간호사 인력이 기준보다 많은 경우와 완화의료 병동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일정금액이 가산돼 1일당 종합전문기관은 16만810원~17만5470원, 종합병원 13만400원~14만4650원, 병원은 7만8700원~9만1550원, 의원은 7만2400원~8만3510원이 적용된다.

심평원은 "정액수가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진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 등 완화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환자는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양에 관계없이 일정금액(등록 암환자 5% 적용)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식대(행위별수가 기준 적용)와 건강보험에서 급여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종전과 같은 방식대로 환자 부담 진료비가 발생한다. 또한, 완화의료 평균 재원일수, 급성기 병상 및 외국의 체감제를 참고해 종합전문·종합병원의 입원 16일째부터 정액수가 체감 및 본인부담 체증된다.

시범사업은 향후 1년 6개월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완화의료서비스 전문 의료기관 모형 개발과 확대시 적용할 적정 수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정액수가 수준 및 입원료 체감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본 사업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라면서 "적정 비용으로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7개 기관은 서울성모병원, 길병원, 공단 일산병원, 부산성모병원, 샘물호스피스병원, 서울시서북병원, 전진상의원 등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심평원은 합동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 중이다.

2010-01-26 오후 5:26:53 ©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